

우리말나들이

강재형 · 문화방송(MBC) 아나운서

내가 네 애비¹⁾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아이 엠 유어 파더(I am your father)’? 영화 ‘스타워즈’의 한 장면을 옮겨 온 게 아니다. 내가 ‘너’, 그러니까 ‘우리말나들이’의 아버지라는 얘기이다. 서기 1993년 시월의 어느 날 ‘시험판’을 거쳐 그해 한글날에 즈음해 첫선을 보인 사내 방송 언어 순화 유인물 이름에서 시작한 프로그램 ‘우리말나들이’. 그게 씨앗이 되어 뿌리내리고 줄기를 뻗어 지금의 튼실한 ‘우리말나들이’가 되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우리말나들이’의 탄생부터 지금에 이르는 ‘역사’를 되짚어 볼 것은 아니니 부담스러워하지는 마시기 바란다.²⁾

세상에 어미 없이 아버지만 있는 자식이 있을까. 유복자³⁾도 있고, 정자 기증 따위로 값진 생명을 얻어 세상의 빛을 보기도 하는 ‘눈부신 과학의 시대’라 해도 어미 없는 자식은 없다. 어미는 누구인가?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서⁴⁾ 감히 말하건대, ‘우리말나들이’의 어머니는 시청자 여

1) ‘아버지의 낮춤말’의 비표준어. 그러니까, ‘애비와 에미’는 ‘아비와 어미’라 해야 어법에 맞는다.

2) 이와 관련해서는 ‘방송과 우리말 3호’에 실린 ‘우리말나들이 10년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3) 아버지가 죽은 뒤에 태어난 자식

4) ‘~로써’인지 아닌지 여전히 헷갈린다. 재료나 원료, 수단,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는 ‘~로써’, ‘~로써’는 지위나 신분,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흔히 자격격(~로써), 기구격(~도구격)으로 구별한다.

러분이다. 공영 방송 문화방송의 정규 편성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 큰 힘은 시청자 여러분에서 비롯되었다는 얘기. 특집 방송 몇 번을 빼면 방송 시간이 길어야 1분 안팎인 ‘우리말나들이’. 이 녀석을 날마다 제작해 방송하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있기 때문이다. 뉴스와 스포츠 중계를 비롯해 온갖 프로그램을 두루 진행하는 아나운서들이 피디로 나서는 사명감도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이 있기 때문이다. 첫 씨앗을 뿌린 사람은 내가 맞지만 따지고 보면 문화방송의 모든 아나운서가 ‘우리말나들이’의 아버지(들)이다. 물론 여자 아나운서들도 포함해서.

지금 ‘우리말나들이’ 작가는 박연희이다. 그를 면접하던 날의 장면을 기억한다. 열 명 남짓한 ‘작가 후보’ 중 내 눈에 땀 그가 내게 했던 질문은 “결혼하셨는가?”였다. 내게 관심 있나, 착각할 만한 물음. 뜬금없이 ‘결혼 여부’를 캐 까닭은 제작진으로 한 식구가 된 뒤에 알았다. ‘일을 좋아해서 여인에게 관심 없을 거 같아서’ 뭐, 그런 거였다. 그럴듯한 이유이나 잘못 짚은 거 아닌가? 어쨌든 그는 ‘엉뚱해서’ 돋보였다. ‘우리말나들이’에는 ‘스필버그적⁵⁾ 발상’이 필요했으니까. 그렇듯 재기발랄한 ‘사차원 소녀’가 ‘징하계도⁶⁾ 내리는 비’가 몇 주째 이어지던 지난여름 어느 날, 내게 흘리듯 한 마디 건넨 게 이런 글을 쓰게 했다. “그동안 방송되었던 ‘우리말나들이’ 내용을 책으로 엮어 내려 하니 한마디 해 달라”는 말이었다. 국립국어원에서 “《새국어생활》 가을 호에 실을 원고 하나 보내 달라”는 얘기를 들은 며칠 뒤의 일이었다. 내 마음이 징했다(이번에는 북한말 ‘징하다’의 뜻). 첫 방송 편집 때 여의도 본사 4층 편집실을

5)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lberg, 1946~). 영화 E.T, 인디애나 존스 등을 감독한 미국의 영화 감독

6) ‘같은 일 따위가 반복되는 까닭에 질려서 지겨워지다’쯤 되겠다. ‘지겹다, 징그럽다, 지긋지긋하다’는 뜻으로 쓰는 전라도 사투리로 알고 있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올라 있지 않다. ‘속이 저릿하도록 한 번 울리다.<북한어>’만 표제어로 나와 있을 뿐이다. 징이 ‘징’하게 우는 걸 담아낸 표현인 듯하다.

울리던 ‘시그널 음악’⁷⁾이 컷전을 쟁쟁하게 울렸다. 여는 말과 컴퓨터 그래픽, 자막 한 글자 한 글자가 눈앞을 날아다니며 내게 손짓하는 듯했다. 그래서 몇 마디 하려 비 내리는 다방 테라스에 앉아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추녀에서 빗물 듣는 고택 뒷마루에서 쓰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말나들이’의 시작은 여러 면에서 여느 프로그램과 달랐다. 아니, 달라야 했다. 기능적으로는 아나운서가 북 치고 장구 치는 일이다역(一人多役)을 해야 했기에 그랬다. 내용적으로는 문장 구성과 발화(발음), 자막의 무결점을 기본으로 삼아야 했다. 덧붙여 ‘고리타분한 언어 순화의 틀’을 깨려 했다. ‘틀린 우리말을 바로잡고 좋은 우리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 시청 흡인력을 높이기 위해 쉽고 재미있게 제작’. ‘우리말나들이’ 첫 제작 기획서에 있는 ‘기획 의도’이다. 그렇다. 쉽고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날마다 다른 구성을 하려 무던히도 애썼다. 문화 방송에 막 도입되어 쓰이기 시작한 ‘버추얼 스튜디오’는 우리의 놀이터였고, 소재에 맞는 화면과 설명을 위해 헬리콥터를 띄우기도 했다.

‘우리말나들이’ 연출을 맡은 아나운서는 줄잡아 40여 명, 출연자는 문화방송 아나운서의 수와 거의 같다. 짙은 젊은 날에 이 세상을 급히도 떠나 버린 3명도 포함된다. 방송을 사랑했고 아나운서를 천직으로 삼았던 송인득, 정은임, 김태희이다. 송인득은 팀장으로, 정은임은 연출자 겸 진행자로 ‘우리말나들이’를 잘도 키워 냈다. ‘북한말 특집’을 만들러 금강산에 함께 갔던 김태희는 북한 안내원을 취락폐락하는 당당함으로 현지 촬영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가 버린 친구’ 셋 모두는 우리 방송계의 보배들이었다.

‘우리말나들이’는 아나운서 진행에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했다. 박나림은 콧수염 분장에 지팡이를 휘두르는 채플린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

7) ‘바흐’의 곡을 편곡한 작품의 앞 대목을 잘라 썼다. 음반 백여 장을 쌓아 놓고 몇 날 며칠을 들으며 골라낸 곡. 지금 ‘우리말나들이’ 시그널 음악과는 다른 곡이다.

고, 나무꾼에 ‘늑인’ 선녀가 되기도 했다. 무명 저고리에 머리끈 질끈 동여맨 나무꾼은 중후함과 세련됨의 표상이기도 한 박경추, 김주하는 박나림과 ‘승강이’와 ‘실랑이’를 놓고 승강이를 했고, 변창립과 황선숙, 김상호는 웬만한 성우 뺀칠 만한 멋진 목소리 연기를 선보였다. 소복 입고 머리 풀어 헤친 이정민은 사악 앞에서 절규했고, 김완태는 화창한 봄날에 ‘광인’처럼 백댄서가 되어 막춤을 추었다. 모두 시청 흡인력을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끌기 위한 아나운서 제작진의 몸부림이다.

촬영 현장에서 외치는 ‘스탠바이, 큐!’, ‘레디, 액션!’은 ‘우리말나들이’의 것이 아니었다. ‘준비, 땅!’이었다. 방송 제작 현장에서 쓰는 일본어 찌꺼기와 외국어의 오·남용도 속아 내야 진정한 ‘우리말나들이’를 만들 수 있다 여겼던 까닭이다. 고답적인 아이템은 떨쳐 내고 ‘참신한 소재’를 찾아내려 했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니 규범에 어긋나는 말은 쓰지 말라는 ‘규범지상주의’도 지양⁸⁾하려 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초창기 대본과 구성안은 ‘완벽’을 추구했다. 촬영 현장에서 놓친 문장 구성의 오류, 정확하지 않은 발음 등은 편집 과정에서 보완했다. 자음의 된소리와 예사소리 구분은 물론이고 ‘내’와 ‘네’, ‘외’와 ‘왜’, 그리고 ‘웨’의 소릿값도 MC로 나선 아나운서는 구별해야 했다. “네, 이렇게 얼굴에 핏기가 없고 창백한 모습을 가리켜 ‘해쓱하다’, ‘해썩하다’, ‘헬쓱하다’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요, 어느 말이 맞는 걸까요?” 박나림이 진행할 때 방송한 ‘발화(發話) 내용’의 일부이다. [해쓰카다]와 [해썩카다] 발음의 분명한 구별은 물론 [말:]처럼 긴 소릿값도 확실히 하려 했다. ‘우리말나들이’는 문장 호응이 어긋나는 비문을 용납할 수 없고, 발음 전달을 허투루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랬다. 그래도 오류가 없지는 않았다. 방송의 오류는 가능하면 바로잡아 사과와 뜻과 함께

8) 흔히 헛갈리는 표현. ‘지양(止揚)’과 ‘지향(志向, 指向)’. 음가도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방송한 적도 있었다.

그나저나, ‘우리말나들이’는 왜 ‘우리말’ ‘나들이’인가.

‘우리말나들이’가 첫선을 보인 건 유인물 발간 한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나운서 데스크포스팀의 보고서 ‘아나운서실 업무 개선 방안’이 그 시작이다. 이 보고서 첫머리에 ‘우리말 관련 정규 프로그램 제작 추진 방안’에 ‘우리말나들이’가 처음 등장한다. ‘우리말’은 남북한을 가리지 않고, 재외 동포의 언어를 두루 아우르는 뜻을 담고 있다. ‘한국어’는 남쪽의 언어, 북쪽의 언어는 ‘조선어’ 아닌가. ‘나들이’도 친정 나들이, 서울 나들이, 봄나들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담은 거였다.

이런 뜻을 담아 시작한 ‘우리말나들이’ 프로그램이 올해로 열네 돌을 맞는다. ‘우리말나들이’의 제작·방송이 남긴 자취는 방송 그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언어 순화 프로그램’과 달리 문화방송은 물론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 매체의 우리말 오류를 꼬집는 구성 방식 덕에 PD와 작가는 물론 외부 출연자들이 조심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언어) 실수가 시청자는 물론 제작 관계자에게 고스란히 ‘확대 재생산’되어 전달되기 때문이다. ‘우리말나들이’ 제작에 참여한 편집 감독들의 ‘시어머니 노릇’도 우리말 다듬기에 단단히 한몫했다. 프로그램의 최종 완제품을 만드는 종합 편집 작업 중에도 틀린 자막 등이 나오면 편집을 중단하고 “‘우리말나들이’ 편집하면서 배웠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훌륭한 ‘교정자’ 역할을 하곤 했다.

‘장맛비 내리는 날 어느 다방 테라스에 앉아’ 쓰기 시작한 글을 참 오랜 시간 썼다. 한낮에는 매미가 울어 대고 해 떨어질 녘에는 귀뚜라미가 노래하는 가을 문턱에 들어설 즈음에 이 글을 마무리한다. 어제와 오늘을 떠올리며 펼쳐 놓은 기억의 조각들이 괜한 장광설이 되어 오히려 짜 맞추기 어려운 ‘조각 그림’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창밖에 휘청이는 나뭇가지와 훑날리는 비를 보며 ‘우리말나들이’의 내일

을 믿음을 담아 그려 본다. 바람에 흔들려야 부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흐르는 세월 따라 제작 방식과 방송 소재를 쉽 없이 진화시켜 온 어제
와 오늘의 '우리말나들이'가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더불어
무럭무럭 자라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